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찾아서 <10>

제17호 생칠장 송복남씨

투명한 흑빛...수백년 그대로 '깊은 맛'

그의 공예 과정을 보고 싶다면 마차 서울로 떠나는 자식에게 두둑히 옷을 입히는 부모가 연상된다. 형편이 어려워 많은 쌀지둔을 쥐어 주지는 못하지만 외진 곳에 나가 출처않게, 또 기죽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모저모 챙기는 부모의 마음을 고스란히 닮았다.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7호 생칠장 송복남씨(68·안양시 부림동). 송씨의 공예품은 오색찬란한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다. 다소 어두워 보이기도 하며 무늬가 거의 없어 조금은 밋밋하기도 하다.

하지만 '잘 빠진 팔등신의 몸매'처럼 매끈한 표면을 갖고있고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품었다. 그 때문인지 어느 공예품보

면저 터를 잡고 있던 친구는 그 곳의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송씨도 친구를 따라 다시 작업을 하게됐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칠 작업을 배우게 됐다.

"처음부터 칠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우연히 기회가 와 너무도 기뻐지만 터를 내지 않았죠. 속으로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해야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깨너머로 본 것을 직접 해 보가며 체득했다. 손재주가 있던 탓인지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았고 일취월장 하며 같이 시작한 또래 친구들을 넘어 선배들까지 따라 잡았다. 때문에 공장에선 가장 많은 임금을 받게 되었고 18세가 되던 해부터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림을 꾸릴 만큼 돈을 벌었다.

스무살이 넘어 군복무를 마치고 서울에 다시 정착한 송씨는 서른살이 넘어 스승인 고 훈순태 선생을 만나게 된다. 서울시

분이 25%나 함유되어 있어 그 가치 또한 뛰어나다. 뿐만 아니라 생칠을 한 물건들은 물리적 파손이 없는 한 수백년 동안 거뜬히 보존될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좋다. 생칠을 한 기물의 무게는 가벼워지는 반면 강도는 더욱 강해지고 변색, 변형의 염려가 없어 관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된다.

생칠의 작업 순서는 잘 건조된 기물에 사포질을 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만든 후 초칠을 함으로써 시작된다. 칠을 해나가는 방법은 나이테가 살아있는, 즉 선명히 보이는 기물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며 기물의 용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나이테가 살아있는 기물인 경우 초칠을 묽게 해서 시작하는데 이것은 생칠액이 최대한 기물에 잘 스며들게 하기 위함이다.

생칠품...무게는 가볍고 강도는 더 강해져

55년 외길...우리것의 소중함 지켜

다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이 특징. 또한 나전을 만나면 더욱 화려한 모습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생칠장의 장인인 송씨는 칠(漆)만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문양이야 넣을라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죠. 하지만 자연스런 느낌은 칠만으로도 추합니다. 꾸미지 않은 아름다움이랄까요..."

생칠장은 가공하거나 정제하지 않은 옻나무액과 용매만을 이용해 가구나 그릇 등의 물건에 칠을 하는 기술이다. 목재기물에 생칠을 하면 수분이 증발될 때 반투명의 조청과도 비슷한 빛깔이 나면서 은은한 색과 아름다움이 오래 지속되는 우수한 칠기가 만들어진다. 비슷한 것으로 나전칠기가 있는데 이것은 옻나무액을 정제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생칠보다는 그 빛깔이 훨씬 연하다.

'생칠장'이란 명칭은 오래전부터 옷칠을 전문으로 하는 장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통용돼 온 이름. 옻나무 원액은 6월말에서 10월까지 채취가 가능하다.

송씨가 전통공예와 인연을 맺은 것은 그의 나이 13세 때. 친구의 권유로 나전칠기공장을 찾았다가 번쩍번쩍 빛을 발하는 공예품에 매료돼 시작했다. 물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던 힘든 시절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견습공 신분으로 '칠'이 아닌 '자개'작업을 맡았다. 하지만 비과학적인 작업방식과 무던해도 미련해 보이는 작업 환경 등에 금방 질려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송씨.

"끓음질(줄 선과 같은 무늬를 내는 방식)을 하는데 허로 할아야 했습니다. 허의 온도가 표면에 칠해진 야교를 녹이는데 적절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야교가 칠해진 표면을 입으로 핥다니... 지저분한건 말로 다 못하죠."

서울 동대문구 답신리가 고향인 송씨는 2년여 동안 자개작업을 하다 6·25전쟁이 터져 피난길에 오르게 된다. 그러던중 우연히 충남 천안에 정착하고 그 곳에서 다시 친구를 만났다.



무형문화재 생칠장 기능보유자였던 홍 선생은 송씨에게 많은 것을 남겨 주었다. 생칠의 기능뿐 아니라 전통무형문화의 맥,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준 것. 이 때부터 송씨는 기능인이 아니라 장인으로 거듭나게 됐다.

故 홍순태 선생 사사...장인으로 거듭나

"자화자찬 같지만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생계를 위해 노력했지만 홍 선생님을 만나고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전통공예의 깊은 맛과 제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됐죠."

생칠공예품은 가구나 장식품에서 식기류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범위가 매우 넓다. 또 원료인 옻에는 독성이 없고 항암성

이것을 묽게 하기 위해서는 석유와 같은 용매를 섞는다. 초칠을 하고 난 후, 아직도 남아있는 나이테의 거친 결을 매꾸기 위해서 토분(진흙을 물에 타서 가라 앉힌 앙금을 말린 고운 흙가루)을 물에 개어 그 분량의 반에 해당하는 생칠액을 섞어 나이테 결과 결 사이를 메꾼다.

"작은 소주잔 하나라도 생칠과 덧칠 작업만 수십 번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건조하는 과정과 칠하는 공정 등 하나의 생칠공예품을 만들기 위해선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리죠."

송씨는 현재 안양의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반과 식기류, 찻잔, 불교용품, 제기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또 바다풀(억새풀) 등에 칠기를 활용해 보는 등 실험작업도 꾸준히 하고 있다.

안양에 정착하기도 11년째. 지난 97년 9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됐지만 마땅한 작업실 하나 없이 방 하나를 작업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족이나 비좁은 집이 더 작아졌다. 시에 작업실 지원 요구를 하고 싶어도 막상 공무원을 만나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성격상 남에게 아쉬운 얘기를 하기 싫어하기 때문. 하지만 보다 좋은 생칠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분명 좋은 작업환경은 필수다.

"처음 안양으로 왔을 때 지원 약속을 받았지만 그 뒤로는 감각 무소식이네요. 어찌됐던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작업은 늦추지 않고 꾸준히 할 것입니다. 일생의 업인데 환경을 핑계로 손을 놓을 수는 없겠죠."

군데군데 얼굴을 차지하고 있는 주름이 범상치 않은가 했더니 바로 그 덕(德)때문임을 알았다.

/박노훈기자 nhpark@kgib.co.kr
사진/김시범기자 sbkim@kgib.co.kr



“ 처음엔 생계를 위해 노력했지만 홍순태 선생님을 만나고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전통공예의 깊은 맛과 제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됐죠. 작은 소주잔 하나라도 생칠과 덧칠 작업만 수십번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건조하는 과정과 칠하는 공정 등 하나의 생칠공예품을 만들기 위해선 최소 한달 이상이 걸리죠. ”